

蓮亭 CHM 지원공연

명상이 흐르는
춤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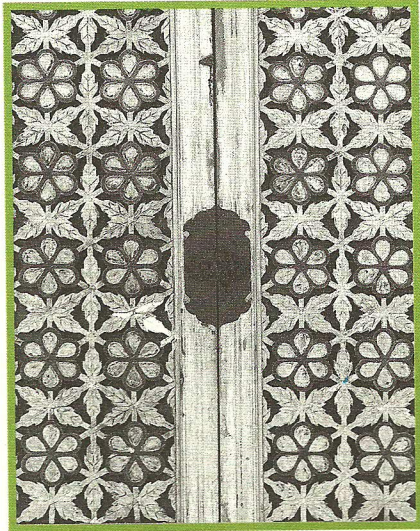
蓮亭 문하 춤 5人展

예술총감독 · 이윤자

춤·명상 / 최준명
김지영
김추자
고정숙
이봉진

2002년 3월 13일▷14일 저녁 7시 30분
부산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주최 / 蓮亭 CHM
주관 / 춤·화두 연구회
후원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문의 / 051-510-2949, 1740



명상이 흐르는 춤향기

예술총감독 李 允 子

안무	최준명 고정숙 김추자 이봉진
춤	춤·화두 연구회
음악편집	서상환
조명	심문섭
무대감독	심문섭
기획	고정숙
진행	박지선, 강수나
디자인	유임숙(DJD)

蓮亭 입춤

안무 · 李允子
춤 · 김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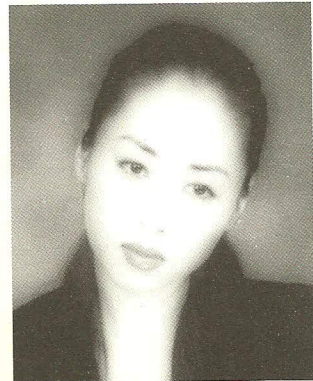
■ 작품개요

본 입춤은 蓮亭 이윤자 교수께서 대 주제 “춤 맥 이어가기” 일환으로 맥-그리고 창조 의 장으로 안무하신 대표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 춤은 밤새 참선하는 자의 싸늘한 심경을 구름 살풀이 장단을 타고 우리 춤의 묘미와 몸짓의 심혼(心魂)을 담아내는데 의미를 두며, 蓮亭 이윤자 교수께서 1983년부터 현재까지 30여회 이상 국내외 발표되어 찬사를 받아온 작품이다. “蓮亭 입춤”의 맥-그리고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 1. 「박병천 구름살풀이반주에 의한 기본입춤」, 2. 「박병천 구름살풀이반주에 의한 흘춤입춤」, 3. 「이태백 구름살풀이반주에 의한 입춤」, 4. 「김소희 구름살풀이반주에 의한 입춤」, 5. 「조공례 구름살풀이반주에 의한 본살풀이춤」, 6. 「蓮亭 살풀이춤」 여섯장르의 단계를 통해 전수시키고 있다. 蓮亭 선생께서 명상을 통하여 전통춤에 대한 새로운 사색, 자아성찰, 현대적 해석을 하도록 공부시키고 있다.

이번 발표될 춤은 박병천 구름살풀이 반주에 의한 흘춤입춤으로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속에서 울리는 恨의 정신을 삶과 개인의 느낌으로 담아 그늘을 밝음으로 이끌어 내려는 한국인의 삶과 미의식 속에 묻어난 우리민족의 심오한 내면의 심층을 풀어내는 현대 한풀이 춤이다.

- 「이윤자 춤 · 話頭」 참가공연('94~2000)
- 「李允子 부산한국무용단」
캐나다, 미국 초청공연 참가 'Summer Event 2000'
(캐나다 3개주, 미국 18개주 순회, 2001. 6. 24~7. 24)
- KBS 부산무용콩쿠르 전통부문 '금상' ('97. 10)
- 전국예술경연대회 전통무용부문 '은상' ('97. 5)
- 부산한국무용단 “물길따라가는 여로” 안무 ('98. 9)
- 살풀이춤의 '恨'의 현대적인 해석 (2000, 석사논문)

현/ • 춤 · 화두 연구회 연구원
• 부산한국무용단 운영위원



명상 한 호흡

스승님의 춤 맥 이어가기의 뜻을 받들어 蓮亭입춤을 주제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살풀이춤의 '恨'의 현대적인 해석」을 연구한바 있다. 이를 통해서보면 '恨'은 맺힘과 풀림을 화해와 조화의 융합으로 곧 행복을 얻기 위한 현대적인 살풀이의 의미로 본다. 춤을 추다보면 호흡과 몸과 정신의 기운이 하나가 됨을 느낄 때가 있다. 손 한자락 발 한디딤의 전통 춤사위를 바로 잡아 익히기까지는 나의 내면과의 슬한 싸움과 움직임의 연속이었다. 씨앗이, 생명의 기운을 받아 싹을 튀우듯, 겨울의 지나간 여정의 뒤로 다시 봄 생명의 움튼을 자연스런 들숨과 날숨의 호흡처럼 춤 속에서의 나의 몸짓이 그러하고 싶다. 춤을 춤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과정, 그러한, 춤이 명상이고 춤추는 '禪'이므로 온몸의 氣를 순화하여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명상을 통해서 몸 속에서 느껴지는 기운을 받아 스승님이 주신, 소중한 춤 맥의 운기를 느낄 수 있는 자리이고 싶다.

4人4色의 江

안무 · 춤 · 최준명
고정숙
김추자
이봉진

■ 작품내용

- 1# 어머니
느낍니다.
보았던 것들, 들었던 것들, 말씀하셨던 것들
- 2# 모정 하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나는 모릅니다.
- 3# 모정 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나는 압니다.
- 4# 모정 셋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나는 합니다.

■ 작품의도

어머니들의 댓가없는 희생으로 주었던 안식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고,
가슴치고 싶지만 그냥 그냥 흐흐!
무표정의 웃음으로 날려보냈던 수 세월 몸부림치듯
한 뿌리 하듯 말도 다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조금이나마 이 작품을 통해 하고 싶기에
내 할머니와, 내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 이름을 가질
나를 통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준명의 江



- 최준명의 춤사랑 공연 ('95, 안무 및 출연)
- 97젊은 춤꾼 10인전 "스무살의 어머니" ('97, 안무 및 출연)
- Dance Group 미.지.에 정기공연 ('99, 안무 및 출연)
- 최준명의 DanceMonoDrama "어미" (2000, 안무 및 출연)
- '2001 신진예술가지원공연' 최준명의 "어미" (2001, 안무 및 출연)
- 12간지 띠체조 프로그램개발 연구 (2000, 석사논문)

- 현/ • 춤·화두 연구회 연구원
- 부산한국무용단 대표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강사
 - Dance Group 미.지.에 대표
 - 극단목화 상임안무자

명상 춤

춤을 추다 쓰러지는 날,
눈에 가끔 소금기가 남는다.
손끝까지 파르르 도는 전류를 휘어잡고 온 종일 추다보면,
고통을 느끼는 건 나의 육체이지 결코 내가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 왔던 그 많은 정열들이 과연 눈에 소금기를 남긴 것
이었을까, 결코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내 춤이 꼭 채워지지 못하는데서 오는 결핍이 허전한 그리움을 만들지 않
았는가. 신경은 늘 꿈틀거렸고 항상 많은 꿈이 찾아왔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순수한 충일감을,
대학시절 교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춤의 세계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이제 난 다시 춤을 배우던 그 처음으로 돌아왔다. 내 몸 속의 춤을 풀어
놓고 가만히 깃들 때, 비로소 순연한 움직임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
는다. 그리고 내 춤은 춤 그 자신과 경이롭고 부드러운 내 스승님에 대한
경배이다.

지금, 모두가 부모·자식의 연체가 퇴락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애비가 자
식 손가락을 자르고 이미 이전에는 자식이 애비를 죽이는 그런 세상에 우
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제 살점 아낌없이 떼어주며 혼자 허망함을 달래던
우리네 애미의 모습상과 잊지 못하는 자식들.....
우리네 어미의恨과情에 대한 에피소드를 몸짓으로 풀어가며 부모의 고
통을 함께 느끼고 치유하고자 한다.

고정숙의 江



- 「이윤자 춤·話頭」 참가공연 ('94~2000)
- 「李允子 부산한국무용단」
캐나다, 미국 초청공연 참가 'Summer Event 2000'
(캐나다 3개주, 미국 18개주 순회, 2001. 6. 24~7. 24)
- 蓮亭 CHM 5개년 공연기획시리즈①
춤·화두 / 맥 그리고 창조
「蓮亭 李允子 출전」 참가공연 (2000. 5)
- 제1회 「부산한국무용단 Workshop」 안무 및 출연
'藝-心, 마음' (2001. 12)
- 제2회 「부산한국무용단 춤 워크샵」 안무 및 출연
-김추자의 춤, 고정숙의 춤-
'살아가고 있는 삶? 살아지고 있는 삶.' (2001. 9)

- 현/ • 춤·화두 연구회 연구원
• 부산한국무용단 단원
• 춤 워크샵 추진위원회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이윤자 교수 연구조교

명상 에너지

얇게 고여있는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트리면
그 물은 금새 잉크물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넓은 강물에는 잉크의 번짐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내 마음에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크다면
어떠한 검은 물이 다가와도 그 물을 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어머니의 마음처럼...

내 안으로의 여행을 떠나본다.
내 자신에게 話頭를 던진다.
그 話頭를 가지고 늘 初心의 마음으로
춤 속에 몰입해 보지만 늘 안타까움이 남는다.
그 깨달음을 위하여 명상을 통해서
정진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나아가고자 한다.
꽃의 향기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에서 그 향기를 음미해야 한다.
그렇듯 춤도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내 안의 내면에서부터 나와져야 된다.
나만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一心을 가지고
내안으로의 여행을 떠나본다.
그 여행속에서 나만의 어머니상을 그려보려 한다.

김추자의 江



- 「이운자 춤·話頭」 참가공연 ('94~2000)
- 「李允子 부산한국무용단」 캐나다, 미국 초청공연 참가 'Summer Event 2000' (캐나다 3개주, 미국 18개주 순회, 2001. 6. 24~7. 24)
- 蓮亭 CHM 5개년 공연기획시리즈① 춤·화두 / 맥 그리고 창조 「蓮亭 李允子 출전」 참가공연 (2000. 5)
- 제1회 「부산한국무용단 Workshop」 안무 및 출연 「藝-本, 호흡」 (2001. 12)
- 제2회 「부산한국무용단 춤 워크샵」 안무 및 출연 - 김추자의 춤, 고정숙의 춤- 海巖도 海水도 海風에 노니고 (2001. 9)
- 한국춤의 자연미 연구 (2000, 석사논문)

- 현/
- 춤·화두 연구회 연구원
 - 부산한국무용단 단원
 - 춤 워크샵 추진위원회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조교

명상 진(眞) 향

흐름이 묻힌 품

한 풀·두 풀·세 풀 차곡히 싸여진 천만년의 업을 풀어내듯 어머니의 정은 생명의 움튼을 품고 마냥 흐르고 있다. 천자만이 갈 수 있는 여인의 깊숙한 그 터에 생명의 꿈틀림을 위해 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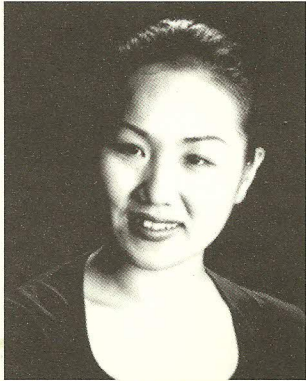
아스레한 무공 속에 생명은 어머니의 정에 싸여 옥 같은 점이 되고, 점에서 줄로 차츰 공간을 메우며, 생명의 포효를 위해 피로피로 엉켜, 어머니의 정에 싸여 탄생의 시간을 메운다.

발을 내딛고, 손을 내밀고, 어머니의 정에 출렁이는 강을 따라 디딤과 내뭍으로 일상의 춤을 춘다. 생명의 출발을 위해 뿔어주던 생명의 물줄기, 무한의 자유와 질서의 깨뜨림이 없는 생명의 터, 이 속에서 아이의 마음은 어머니의 강을 건넌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의 움직임이 그러하다. 어머니의 마음같이 춤은 소유가 아니라 무소유를 담는다. 춤추는 이의 손과 발은 아무것도 소유를 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춤은 그렇게 아무것도 갖지 않기에 '공공' 움직이지 않고 '훨훨' 날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저절로 생명의 질서에 순응하며 꾸밈없이 펼쳐진다. 춤이 한 호흡 한 호흡 속에 담긴 운기를 먹고, 온 우주를 껴안는 충만한 힘을 품듯 생활의 형식이 다른 각기의 공간에서 삶의 형식을 쌓고 있는 지금도, 사랑이 품은 힘으로 공간의 벽을 뚫고 저마다 달리 어머니의 사랑은 흐른다. 사랑이 품은 힘으로, 일상의 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그냥 그렇게 흐른다. 무욕의 강물처럼...

꾸밈을 잊은 자연의 인연(因緣)으로 맺어진 우리, 꾸밈은 꾸밈이되 자연스레 꾸며진 저절로의 꾸밈, 이는 다가올 날을 거닐 춤의 품새로 깊이 새기며, 억지의 향이 아닌 스스로의 몸에서 우러나는 진(眞)향이 되도록 속내의 모양새를 다듬기 위해 명상을, 나를, 나의 참 내(內)를 자연처럼 감동받을 마음으로 오늘도 춤 속에서 짓고싶다.

이봉진의 江



- 「이윤자 춤·話頭」 참가공연 ('94~2000)
- 「李允子 부산한국무용단」
캐나다, 미국 초청공연 참가 'Summer Event 2000'
(캐나다 3개주, 미국 18개주 순회, 2001. 6. 24~7. 24)
- 蓮亭 CHM 5개년 공연기획시리즈①
춤·화두 / 맥 그리고 창조
「蓮亭 李允子 춤전」 참가공연 (2000. 5)
- 「제1회 이봉진의 춤」 (안무 및 출연, 2001. 6)
- 제10회 2001 부산무용제 참가 '구두등(燈)'
(안무 및 출연, 2001. 7)

- 현/ • 춤·화두 연구회 연구원
- 부산한국무용단 단원
 - 춤 워크샵 추진위원회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이윤자 교수 실기조교

명상 무언의 약속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흐르는 강물처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을 타서 마셔도 그 빛깔과 맛을 알 수 없고,
물에 물을 타서 마셔도 그 빛깔과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친 세상, 모진 세상 여자이기를 포기한 채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눈물도,
한숨도 무표정의 헛웃음으로 뒤돌아섭니다.
세월이 지나 자식모두가 장성하여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자리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한결같으므로 흐르는 강물이 바로 내 어머니,
내 마음의 편안을 가져다 주는 내 어머니의 강물입니다.

내 가슴에 멍울져 아파도
내 자식 마음에 멍울지지 않으며
아프지 않다.

내가 춤을 추는 것은
멍울진 가슴, 거짓된 삶이라 하더라도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기 때문이다.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아도
내 자식이 거짓된 삶을
살지 않으면 괜찮다.

술에 술 탄 듯 물이 물 탄 듯
한결같은 마음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춤·화두 연구회

춤길을 향해 어슬어슬하고 뻗어가는 연정(蓮亭)은

“춤추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무엇고”가 곧 화두인 춤 공부 수행을 점검하는 연구단체입니다.

춤·화두 연구회는 이윤자 교수가 1990년 1월 발족한 단체로서 춤의 실상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동양철학의 정수인 참선법(參禪法)에 의거하여 “춤추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뭇고”라는 화두를 통해 내공·외공·진공의 에너지 실체를 찾아 절대 자유자재를 찾고자 참선을 통해 수행·정진한다.

동·서 문화의 전통 및 현대예술 정신사조의 접목과 탈 이념을 통해 우리춤의 운기(雲氣)를 찾아 세계화 부응에 방법론적 제시 방향에 그 목적으로 한다.

이윤자 교수는 현재까지 스물 네 화두작품을 발표하므로써 춤의 근원적인 사과의 개념과 호흡법의 방법론적 제시를 통해 우리춤의 묘미와 몸집의 심혼(心魂)을 담아 내며 대표작으로서는 <히말라야 율음>, <제행무상(諸行無常)>, <마하무드라(Mahamudra)>, <雲氣>, <寒山길>, <산과 물을 기리는 노래>, <前三과 後三>과 <禪>, <이 무엇고> 등이 있다.

국내공연으로는 제10회에 걸친 이윤자 춤·화두 공연과 제10회의 부산한국무용단 정기공연, 기획·초청 춤 공연, 춤·세미나 외 98년 한국자동제어 국제학술회의, 99년 ICMT국제학술대회, 2001년 ISIE 국제학술회의 “蓮亭 전통춤” 초청공연을 가진바 있으며, 해외로서는 92년 하와이대학 주최 “한국전통예술제 페스티벌 이윤자춤 초청공연” “95년 서일본 문화협회 주최” “韓·日 傳統樂舞” 합동초청공연, “98년 IOV(International Organization Folk Art-Unesco) “국제전통예술제(Festival International Del Folklore)” EXPO MONTERRY 98 개최국 멕시코 초청공연, “99년 케냐 한국의 주간 ‘蓮亭 전통춤’ 초청공연” 한미문화재단 주최 “Summer Event 2000 from Korea” ‘蓮亭 전통춤’ 캐나다 3개주, 미국 20개주 순회 초청공연을 가진바 있다.

이윤자 교수는 故 벽사 한영숙선생(인간문화재)의 직계 제자로서 전통춤의 맥을 이어받아 계승·보존하며 “禪”을 통한 춤 철학과 에너지의 밸런스 개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한영숙계보)” 이수자, 부산한국무용단 춤워크샵 지도교수 예술감독, 춤·화두 연구회 대표, 새천년부터 蓮亭 CHM(Chum Hwadoo Meeting) 춤 지원 단체를 발족하여 예술감독으로서 새로운 춤의 만남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신설 1983년도 3월에 부임한후 2002년 3월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